

9장 아론과 백성을 위한 제사

일주일의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였을 때(참조 민 6:24-26),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제물을 다 살랐다. 이제 여기에서 성막을 세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본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을 명백히 보이셨다.

1. 제사를 위한 준비 (9:1-7)

임직식의 한 주간이 지난 후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과 장로들에게 아론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서는 송아지를 속죄제 제물로, 수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였다. 백성을 위하여는 수염소를 속죄제물로, 송아지와 어린양을 번제물로, 그리고 수소와 수양을 화목제물로 준비하고 기름 섞은 소 제물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제사를 준비하고 나아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였다(9:4).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9:6).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을 보여 주시며 영광을 보여 주실 것이다.

9장에서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에 대하여 가르친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였다. 그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히 5:3; 7:27).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는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9:7) 하는 일이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요소가 있다.

2.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9:8-14)

1) 속죄제 (9:8-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았으며 기름 부위는 태워서 드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웠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가서 지성소를 향해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랐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았다. 백성의 속죄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렸으나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제물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웠다.

2) 번제 (9:12-14)

속죄제 후에 수양을 번제로 드렸다. 수양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다른 부위는 씻어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렸다.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침을 번제로 표현하였다.

3.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9:15-21)

1) 속죄제, 번제, 소제 (9:15-17)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숫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송아지와 일년 된 흠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물을 취하여 번제물에 더하여 불살랐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일이 시작된 것을 알려준다.

2) 화목제 (9:18-21)

백성을 위한 화목제로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피는 단 주위에 뿌리고 기름 부위는 태워서 드렸으며,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요제로 드렸다. 그렇게 요제로 드린 고기는 아론에게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이 나누어 먹었다.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은 사죄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람과도 화목한다. 그 기쁨을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나누었다.

4. 아론의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 (9:22-24)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마무리된다(민 6:22-27).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아론이 제사를 드려서 불에 타고 있을 때에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완전히 불사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번제단에 항상 있어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드리는 제물을 흠향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셨다. 번제단의 불로 분향할 향도 태울 것이었다.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태운 일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대하 7:1 이하). 그러한 예는 두 번 더 나오는데, 첫째는 사사기 시대에 마노아 부부가 제사를 드렸을 때이고(삿 13:15 이하) 둘째는 엘리아가 갈멜 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이다(왕상 18:38 이하).

묵상과 실천:

제사 후에 선언된 복과 여호와의 영광

모세는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였고(9:6) 아론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였다. 아론의 축복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 광경을 보고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처음 제사를 드릴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은 앞으로 드리는 제사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 이후에 드리는 제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거나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일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 이적적인 사건이 표시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알려 준다.

제사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인데, 바르게 드린 제사를 여호와께서는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러한 뜻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서 완전히 나타났다.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아드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보여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백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의 복의 선언과 함께 끝났는데(민 6:22-27) 신약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언과 함께 끝난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과 교제가 주님의 백성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계속하여 이끄신다.

9장 익힘 문제

1. 위임식 후 아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8-12절)

- 2 위임식 후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어떤 제사들을 드렸습니까? (15-21절)
3. 1) 첫 제사를 끝낸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 2)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 3)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절)